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람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Œ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국장: 조선근



스리랑카·일본 단기선교 출발

각각 24일과 25일에

지난주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의 출국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단기선교를 위해 두 팀이 출발하게 된다.
24일(월)에는 스리랑카로, 25일(화)에는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스리랑카에는 18명의 지체가 파송되고, 특별히 이번에는 에바다부의 지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발한다.
이들을 위해 충현의 성도들은 깊은 관심속에 지속적인 중보기도로 협력해주시기를 바란다.

금주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중등2부·중등3부 충현기도원에서

지난주, 영아부를 비롯한 교회학교 11개 부서의 수련회가 은혜가운데 무사히 마쳤고, 이번주에는 중등2부와 중등3부가 각각 충현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가지게 된다. 중등2부는 26일(수) 19시에 학부초 초창도 가림 예정에 있다. 충현의 성도들은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되는 자녀들이 수련회에 참석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길 바란다.

중등2부·7월25일(화)~27일(목)
중등3부·7월24일(월)~26일(수)

후반기 장학생선발 서류접수 오늘부터 접수 시작

도시장학회에서는 2000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서류 접수를 금일부터 시작했다. 해당 신청자들은 유념하여 서류접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접수 기간 - 7월23일(오늘)부터 8월13일(주일)까지

접수 장소 - 교육관 1층 104호 교육국

접수 방법 - ① 3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소속교구, 소속교회학교, 봉사부서).

② 추천서와 함께 다른 서류들을 접수한다. ③ 추천서는 본인이 직접 받지 말고, 추천 받아야 할 곳만 추천서 상단에 기록(추천서는 교육국에서 분류하여 추천 받을 곳으로 일괄적으로 보낼 것임)

선교 훈련 - ① 신청자들은 모두 선교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② 8월18일(금)부터 19일(토)까지 기도원에서 실시 ③ 중등부·고등부·에바다부 학생 등, 모든 장학금 신청자는 전원 참석

춘천소년원 여름성경학교 현신된 교사를 모집

교정전도회에서 실시하는 춘천소년원(신촌중학교) 여름성경학교가 8월7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되는데, 이를 위하여 교사로 섬길 일꾼을 모집하고 있다.

자격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헌신된 성도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소외된 이들에게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의 마음으로 섬길 지체들은 교정전도회사 황민하 장로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란다.

강남경찰서 전·의경 전도집회

7월 27일, 강남경찰서에서

경찰전도회 주최로 7월27일(목) 강남경찰서 전·의경 전도집회가 실시된다. 장소는 강남경찰서이고, 시간은 오전 11시이다.

교회에서 오전10시에 출발할 예정이므로 회원 및 참가자는 시간에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기도와 준비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

금요 집회(7월 28일)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아십니까?

이번 주 금요집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배우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①그리스도의 영

읽고 묵상할 성구

목상해야 할 내용

- 요16:7, 롬8:9, 고전6:19, 고후5:17, 갈4:6, 엡5:18

- 내적인 부패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마음과 성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고전6:19)

- 성령은 언제 부패한 인간에게 들어오시는가? (마28:19)

②그리스도의 교회

읽고 묵상할 성구

목상해야 할 내용

- 마16:18, 고후13:13, 갈3:29, 엡4:3-4, 빌2:1

- 그리스도와 성도, 또는 성도와 성도는 어떤 관계인가?

-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진 공동체인가?

한편 금요집회를 통해 찬양과 은혜를 나누어줄 찬양 팀과 곡목은 다음과 같다.

① 7교구 창조와 '구름 같은 이 세상' '어둔 밤 마음에 잠겨'

② 홍영금(비올라), 이운주(첼로) '예수 나를 위하여' '은유한 주님의 음성'

목·정발법

참 자유인의 기쁨

여성 기 (목사, 10교구)

지금 나의 마음은 기쁘고 평온하다. 세상것과는 다른 하늘의 평화와 가슴속에 있다. 누구도 큰 감동과 감사가 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있다. 나의 삶의 모든 정황을 뛰어넘게 하고 그 복음 안에 있기에 참 자유를 누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과 그의 삶이 우리에게도 함께 나누어졌다는 놀라운 고백이 얼마나 단순 하면서도 놀라운가! 나의 믿음과 법적 위치는 빌새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확고함이 내게 있다. 경이로운 복음! 그토록 열망하고 사모했던 보배로운 주님과 그의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역동적으로 살아 있다니... 쓰레기디미에서 깨끗한 장미가 핀것과 같이 비교할 수 있을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는 완전한 위약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신생의 기쁨이다. 구원의 큰 기쁨과 감사과 아울러 새사람의 옷을 입고 산자의 기쁨을 회복한 나는 목숨보다 더 중한 복음전파와 사명을 위해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주님의 의지하기를 소망한다.

우리의 자랑은 역사와 전통, 웅대한 교회당, 개인의 신앙역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순수하고 깨끗하게 전파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음을 확신한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것만이 인류의 살길임을 믿는다. 오늘날도 나는 복음 안에서 참자유인으로 살아가다.

Your Cross

(Matthew 10:34-39)

"And anyone who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me is not worthy of me.
Whoever finds his life will lose it, and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Today's passage is a part of the instructions Jesus gave to His disciples before sending them out to minister to the Jews first, and then later to the Gentiles. Listen closely to His words, "Do not think that I came to bring peace on the earth; I did not come to bring peace but a sword. For I came to set a man against his father, and a daughter against her mother, and a daughter-in-law against her mother-in-law; and a man's enemies will be the members of his household. He who loves father or moth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he who loves son or daughter more than Me is not worthy of Me. And he who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after Me is not worthy of Me. He who has found his life will lose it, and he who has lost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Jesus mentions these important things, not because He hates you, but because He loves you. He loves you so much that He wants to bless you. Indeed, His teaching goes against your cultural upbringing. Your own country, and the world at large, strives for peace. Families go to great lengths to be together. Yet, Jesus says that He came not to bring peace, and that a man's enemies will be the members of his family. This is hard to understand. Why? Simply because your reality and dreams are tied to the world's perceptions. You were educated to think like this. Jesus bids you to follow Him because He loves you, and sincerely wants you to know the truth. His view is different. Do you truly accept His advice?

The significance of Jesus' statement is very serious. It requires a deep relation with God in order to comply. Those who openly confess Christ in the face of adversity prove their faith, and the results are that Jesus will confess them before His Father (see Mt. 10:32). In contrast, those who deny Christ before others, Christ will also deny them before His Father (see Mt. 10:33). Jesus loves you. He knows the number of hairs on your head. He's

going to take care of you. Not one little sparrow falls to the ground without His knowledge; how much more so does He care for you, His child! Without faith it is hard, if not impossible, to understand Jesus' instructions.

The cross is your real inspiration. "And he who does not take his cross and follow after Me is not worthy of

What does it really mean to take your cross? It signifies sacrificing oneself and laying down oneself before Christ. Those who take their cross endure persecution by relying on Jesus for their strength. They lose the wealth of the world in order to gain the treasures of life. They wait for their Father's will in heaven. They

up whenever you feel like, you take it to go forward. You boldly take it, and patiently, step by step, follow where it leads. Jesus' cross is bigger. Wherever He points, you should obediently follow because this is necessary. And with thanksgiving you should follow because this is the eternal way of endurance. This heavy burden is a royal novel. It is a sanctifying burden. This burden allows you to fellowship with God. It is the best and only way for dealing with your sin.

How can you be encouraged? You have to think only this way! You have to see that the cross is the absolute, only way to become His disciple. Your spiritual eyes can then see the beauty of your sacrificial cross upon your family, church and society. When you take the cross, you feel His love, not only for yourself, but the world. In other words, you know the love Jesus has for society. You understand more of God's grace. Your faith grows. When you take your cross, you have hope. You are born again. When you take your cross, you honor Jesus. You have true peace. When you take your cross, you really find the blessing of God. You receive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When you take your cross, you have great expectations about the crown of life. You know that without the cross there is no crown.

If you give up your selfishness, and take your cross, you can find the most beautiful life. Not the kind of beauty known to the world such as life, fame and fortune but the kind of beauty that lasts forever. People who don't want to take their cross, who prefer to do their own thing, only find trouble. But those who choose to suffer a little now, compared to a lot later, find a joy that is unspeakable and a peace that is everlasting. Jesus promises that His yoke is easy and His burden light (see Mt. 11:30). His way may appear to be more difficult than the world's, but compared to the ending destinations of all humans, heaven or hell, it is very easy. Therefore, take your cross now, for tomorrow is promised to no one. **A**

*If you give up your selfishness,
and take your cross, you can find the most
beautiful life. Not the kind of beauty
known to the world, such as life, fame and fortune
but the kind of beauty that
lasts forever. People who don't want to
take their cross, who
prefer to do their own thing, only find trouble.
But those who choose to suffer
a little now, compared to a lot later,
find a joy that is unspeakable and a peace
that is everlasting. Jesus promises that His
yoke is easy and His burden light
(see Mt. 11:30). His way may appear to be more difficult
than the world's, but compared
to the ending destinations of all humans, heaven
or hell, it is very easy. Therefore,
take your cross now, for tomorrow
is promised to no one.*

Me" (v. 38). In other words, your cross is above all earthly things. Your allegiance, even to death, is demanded of Christ's followers. Your cross must follow His cross.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lead you from here to heaven. This journey is not fun. It's not filled with physical comfort and happiness, but leads to marching toward suffering, scolding, laboring and trying times. My dear friend, do you really understand your cross? If you want to truly get it all, then take your cross and follow where He leads you.

understand that their cross was made wisely, kindly, and well by their Father because only that way can they meet God the Father. That's your cross, that's my cross, that's the cross that leads to heaven.

What should you do with your cross? Take it and follow Jesus. You did not choose the cross, nor did you make the cross. Your duty is only to take it, without complaining, neglecting, philosophizing and despising the way God has chosen for you. You don't just touch it or pick it



김성관 목사

자기 십자가

(마10:34-39)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혈통적인 관계 이상의 것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보내시기 전에 가르치셨던 교훈의 한 부분입니다. 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보다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

예수께서 중요하게 언급하신 이것은 그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그의 교훈은 여러분들의 문화적 가치를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와 세상의 일반적인 곳에서는 평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가정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모저모로 친분을 쌓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은 평화를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지요? 간단히 말하자면 여러분의 현실과 희망은 세상의 인식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생각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진실로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시니까?

세상의 고난에 의해 드러나는 것

예수께서 언급하신 의미는 매우 중대합니다.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요구됩니다. 역경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예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인정하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마10:32). 반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가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부인하실 것입니다(마10:33). 예수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여러분들을 보살피십니다. 작은 창세 한 마라도 그의 허락 없이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을 얼마나 지극한 마음으로 돌보실까요! 비록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함께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진정한 감회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38절).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십자가는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위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요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반드시 그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면 당신을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순례의 길은 재미있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위로나 행복감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고난, 경멸, 고생 그리고 애써 하는 순간들을 맛보며 행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정갈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이해할지 원하신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십시오.

자기를 포기하는 것

그러면 자기의 십자가를 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취한 자들은 자기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꺾임을 견뎌냅니다. 그들은 영생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부유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십자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의해 넓고, 친절하고, 그리고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십자가이고, 나의 십자가이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그것을 등에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무는 단지 그것을 등에 지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이론을 세우거나 경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살짝 만지지만 해소도 안되고, 기분 좋게 느껴질 때만 골라잡아서도 안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만 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대담하게 십자가를 지고, 인내함으로, 한 걸음씩, 십자가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위대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을 지시하든지 여러분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원으로 향하는 인내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거운 짐은 늘라를 특권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명에입니다. 이 명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다루는데 있어서 최선의 것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참된 축복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용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이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며, 그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

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당신의 가족이나 교회, 그리고 사회보다 자신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신 그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여러분은 예수께서 사회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사랑을 알게 된다 것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며,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은 예수가 정말로 자랑스러울 것이며, 참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은 생명의 면류관에 관한 큰 기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평화의 안식처

만일 당신이 자기의 이기심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전다면,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영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 알려진 명성과 부, 그리고 황홀함으로 수놓은 생애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한 아름다움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의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오직 시험을 만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작은 고난을 선택한 사람 나중에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이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원한 평화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의 명에는 없고 그의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마11:30). 십자가의 길은 이 세상의 길보다 더욱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의 종착지가 될 천국과 지옥은 그가 살아온 결과를 비교해 볼 것인데 그 길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내일은 아무도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

이 열쇠로 스리랑카를...

김 지 은 (고통부)



하 나님께서 저에게 열쇠를 보내 주었습니다. 너무 예쁜 열쇠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보고 즐거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란 잡거진 자물쇠를 열기 위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보지만 할 뿐, 아직 그것을 쥐는 법조차 몰랐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한 주, 두 주 밤새까지 남아 말씀을 나누며 그 열쇠의 사용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직 서투르긴 하지만 열쇠를 우리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의 짙은 찾아 스리랑카로 떠났습니다.

스리랑카 단기선교팀은 가정방문과 캠퍼스 사역 등을 통해 선교를 하게 됩

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장 서 계실 것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인제가 수제가 아닌, 인제라도 만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의 마음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이 열쇠로 그들의 닫혀진 자물쇠를 열어줍니다. 열쇠가 자물쇠를 찾으면, 우리는 그것을 그 마음에 찾아든 채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미 열려진 우리의 마음처럼 그들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다른 자물쇠에 열쇠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열쇠가 자물쇠를 열듯,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농아인 선교단 일본 단기 선교팀을 소개합니다

김 상 화 (집사, 예배대부 교사)

일본 단기 선교팀은 7월 25일(화)에 출발하여 일본 오이타에서 8월 9일간의 선교 활동을 펼치고 8월 21일(수)에 돌아온다. 다른 단기 선교팀과는 다른 특징은 총회교회 예배대부의 농아인(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의 농아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므로 인해 농아인의 언어인 수화가 다르지만 일본의 수화와 한국의 수화가 60%정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비교적 언어 소통은 수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4월부터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여 일본 오이타 농아인교회 목사님을 초청하여 일본의 농아인교회 상황에 대한 소개를 받기도 하고 일본수화와 기본 일본어를 배우며 일본 농아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모두한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다.

이번 선교단기의 목표는 경제가 부강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신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일본을 복음적 시각에서 격정하며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



누기 위해 먼저 일본 오이타에 농아인들이 참여하는 농아인협회(복지관)를 통해 연극공연과 마임, 수화찬양을 하면서 500여명의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가족인 일반인들도 농아인교회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교단장은 윤원현 장로가 지도 교역자로써 박인기 목사, 홍무로 김상화 집사가 참여하며 선교단원은 김정환, 장정훈, 최진원, 정영미, 종은숙, 채경환, 이종훈, 강민아, 정지호, 변은정, 김성준 이상 14명이 단기 선교팀 단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일본 농아인 선교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일본의 농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뿐 아니라 단원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농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훈련의 과정으로 삼아 우리 총회교회가 농아인의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성행해 주길 당부한다.

유년부 토요일전도팀



어린 영혼에 대한 소중함으로

어린아이들이 양중맞은 웃을 입고 교의 앞마당 계단에서 선창하는 모습을 보는 날이면 세대의 노래로 아침을 깨운 그런 생애관으로 주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 작은 율리시에 찬양하는 소리가 교회안으로 퍼져나가고 뛰여 노는 그들의 움직임 때문에 교회가 더욱 생동감 있길 바라. 그런 비전을 가진 교사들이 있다.

유년부 교사들, 그들은 매주 토요일 12시가 되면 노현·하동·도곡 초등학교로 전도를 나가신다. 교회학교 초청 전도전지보다 더욱더 실제적으로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다가는 노현 초등학교 앞에 사시는 장용희 집사와 한제순 집사 부부의 헌신으로 시작되어 5년째 매주 전도를 나가신다고 한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주로 전도하시면서 한달이 4명으로 구성되어 한 한 사람은 주수와 화요일을 켜고 주중에 전교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는 일 등을 담당하고 두분은 전도를 하며 한 분은 교회를 홍보하시는 독특한 노하우까지 갖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 어려울 초교 회교 이 힘든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다 주시는 일까지 모두 그분들의 몫이다.

여기까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의 전도가 중요한 이유를 김영기

전도사는 "어린이들이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고 어렸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수록 교회 일꾼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 또한 한국 교회의 미래는 이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어린이로 인해 그 가정의 복음화되는 경우도 있으며 전도되어 온 아이들이 전도를 더 잘한다고 하며 "햇빛이 알을 더 잘 낳고?"하시며 웃으셨다. 전도를 하더라도 유년부 대상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 아이들도 전도하게 된다고 하면서 유년부·초동부·소년부 연합으로 전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황인환 장로님.

교회의 미래를 담당한 일꾼들을 키우시는 그분들의 마음은 지경전 주자공간이 있어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는 과정에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혼자 교회에 오기 힘든 나 아이기에 차장을 교회에서 지원해 주며 안전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다는 등 소박하다. 우리가 쉽게 지나쳐 버린 어린 영혼에 대한 귀중함을 먼저 깨닫고 많았다고 그 일을 담당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그들로 인해 단순히 서 가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본다.

(정명섭 집사)

총회가족 사랑에 울어버린 홀트입양아 가정

이 부 청원자, 영양교육부 부장



30도를 웃도는 뜨거운 열기가 당장 대저를 태워버릴 것 같은 지난 8월 토요일 오후 2시의 대형버스가 교회 본당 앞 주차장에 사뭇뻘 들어왔다. 그 순간 약자지결한 수리와 울긋불긋한 장을 한 미국11개 주에서 온 홀트입양아 및 그들의 양부모와 인솔자 등 197가정 61명이 우리교회를 찾아왔다.

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197가정의 총회 성도들이 이미 도착하여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1995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매년 실시되어온 홀트입양 및 양부모 모국방문의 일환으로 우리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이 마련한 민박가정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이 프로그램은 홀트입양자와 우리교회 세계선교회와 영양교육부 협력으로 이뤄지고 있다. 식구 여섯명은 인솔해온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아버지와 은행원인 어머니와 입양아인 그들의 자제들이 함께 한국을 찾아왔다. 식구 6명을 수용할 민박가정을 찾은 것이 여간 힘들지 않았다. 다행히도 1교구 송준원 집사가가선 선뜻 제공하여 주셔서 큰 사름을 받았다. 예년과 달리 이들이 방문하기 전까지 민박가정이 되겠다는 가정의 4가지에 안되어 주책에서는 매우 당황했지만 양식 그릇들이 사

랑과 협력이 늘 충분한 총회 가정의 뜨거운 사랑과 협력으로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가정의 너무 넘쳐서 이미 준비하고도 맞이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에게 지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협력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리다. 교수·회계사·변호사·사회사업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양부모 밑에 구경살없이 훌륭하게 성장한 그들을 바라볼 때 비록 그들을 낳지 않았지만 친부모 이상의 사랑으로 키워주신 그 양부모의 사랑에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리다.

모국어를 모르지만 모국의 모든 것을 배워보고자 노력하는 그들을 만나볼 때 뜨거운 핏줄의 사랑을 느꼈다. 우리의 형제자매요, 아들과 딸이었다. 이들에게 모국의 향수와 문화를 맛보게 해주기 위해 많은 물질과 시간을 할애하여 이들을 찾았은 그들의 사랑에 고개 숙일뿐이다. 주님만 영예의 영광과 3주에 배를 온혜스럽게 드리고 난 후 '환송예배'에 참석한 그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준 총회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듭 감사한다는 말과 기회가 되면 그들을 맞이해준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싶다는 말도 남기면서 함께 사진을 찍고 서운한 마음을 뒤로한채 교회본당을 떠나갔다.

예를 낚시역

당신 또한
변화
시키실 것을...

김 정 민 (청년2부)

사람하는 민에게
정마가 시작되었어요. 더불어 우리의 여름사역도 시
작이 되었지요? 지난해 통화할 때 같듯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뒤라 말해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글로
써 얘기하게 되어 무척 기쁘요. 저는 민을 대할 때 마
다 바울이 빌립보다 교회를 보며 사랑에 거위 했던 말
이 떠올라요. 빌립보서의 바울의 말을 인용할게요.
“내가 민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 할 때마다 민을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
은...” 그래요, 민! 저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검을바를 때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요.

저의 경험을 잠깐 이야기 해줄게요. 99년 여름, 저는
팀원들을 이끌고 낙도에 사역을 갔어요. 지도에도 나
오지 않는 작은 섬이었어요. 정마처이었고 비바람은
우리의 잠을 깨우곤 했죠. 섬이다 보니 물부족으로 사
위도 제대로 못했어요. 끈적기름과 찝찝함이 있었지
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모든 걸정을 뛰어 넘
게 했어요. 온자 집에서 성경을 읽으며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분, 배타고 나가 일하다가 한쪽 다리를 다쳐 거

동이 불편해 원망으로 가득찬 분, 신학교 다니던 아들
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등을 돌린채 외면하
고 계신 분들을 만났어요. 그곳에는 상처가 없는 가정
이 없을 정도로 가정마다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사로잡았던 것은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가정을 방문하면서 청
찬이 있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목사님도 가정 가정을
사람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지요. 목사님과 더불어
어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
져 갔어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비바람도, 상처입은 가정을 대하는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정적인 신뢰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섬에 살고 계신 분
들의 상처를 깊이 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하지만 놀랄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팀 안에서 넘
치고 있었어요. 뭐냐구요? 우리 팀원 중에는 지도를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감이 통성기도를 하면 언제
나 고요하고 개미기도 시간에는 재빨리 들어났죠. 나
중에 얘기를 하자 보니 본인은 뭐라고 기도할 줄 모르
지 모르겠고 할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
어요. 이런 친구가 어떻게 사역을 을 생각을 했을까
요문이 들 정도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친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사역을 다녀와서 우리
팀은 기도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졌어요. 이 친구의 우
선 순위는 점점 바뀌어졌어요. 자기에게 편리하고 쉬운
것을 먼저 택했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먼
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느날 이러면요. 그동안 술마시는 것에 대해 별 생
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술을 마시면 다음날 Q.T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 안마시기로 했다고. 그때 내가 키마
나 기뻐했지 아세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혼자서 키
득키득 웃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더군요.

저는 소망을 품어요. 그친구를 변화시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 또한 변화시키실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
고 계시는지를 믿은 발견 하게 될 거예요.

△ 만평



글 : 그림 / 김현현

늘 감사함으로

임 대 혁 (청년2부)

벌써 청년교회에 나오게 된 지 12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내 자신이 무
엇이 달라졌는지를 늘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감
사하면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집에서 우리는 불만을 느낄 때가 많습니
다. 그런데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생활한 것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도행전을 배우며
바울의 삶을 통해 많은 힘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지매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과
감사하는 삶을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생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를 나에게 감사해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벌 거
지 없이 직장생활 하는 것, 건강한 부모님이 계신 것,
마실 물과 음식과 산소를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여러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
려나 할 때도 있겠지요?

제가 읽은 글 중 다음과같은 글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다. 은행
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만원을 은행에 예금해 놓았습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반드시 이 돈을 쓰셔야 합니다. 조곤은 없습다.
그러나 유익하게 쓰세요.” 이 사람은 어리둥절하게 하
루를 보냈다가 1440만원을 써보지 못했습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 왔습다. “당신 앞
으로 1440만원이 또 입금되었습다. 그런데 이제 예
금된 돈은 쓰지 않았습다? 그 주인이 도둑이 찾아갔습
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게끔 오늘 찾아가서 그 돈을
쓰시면 그 돈은 당신 것이라요 말합습다.” 두 번째 날
은 조금 미심쩍어 하면서도 이 사람은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가다 썼습다. 에이. 한번 기분이나 내보자
하고 기분 좋게 써버렸습다.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전
화가 걸려 옵습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썼습다. 이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다. 그런데 그 돈을 매일
쓰면서 기분이 좋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꾸만
불안이 생겼습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딱 멈추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불안이 생기기 시작습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고 이 24시간을
분로 계산하면 1440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게 1440분은 안 주셨지만, 1440분을 주셨습다. 우리
는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어
러분에게 24시간을 공평하게 맡겨 주셨습다. 우리에
게 매일 아침 144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
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명으로 채워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습다.
마지막을 25장 15절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
에 게 맡겨 둔 달란트를, 하나님께는 두 달란트를, 하나
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갔더니” 라고 말씀하신 것
처럼 제게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고 한 달란트를 달
란트, 이십 달란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업을 확고에

청년2부 여름수련회 끝나

여름수련회가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천현교회
교육관 2층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내적 부흥”
을 주제로 열렸다. 200여명의 교사와 청년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에서 청년들은 부흥회와 새벽에
대 등을 통해 영성을 회복했으며 교도와 청년회의
발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첫날 개회예배에서 김진식 목사는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는에서 기
독교인의 영적 자유가 시작된다”고 역설했다. 수련
회는 갈라디아서 본문을 토한 조별성경공부, 찬
양집회, 저녁부흥회, 동기도모임으로 이어졌다. 특히
청년들은 집회 시간마다 동료 회원들의 손을 잡고
중보기도하는 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둘째날 최희재 전도사는 성경목상과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조별성경공부, 선교를 주제
로 한 주제별토론회, 추억의 운동회 등의 순서가 진
행됐다. 청년들은 교육관 집회실에서 잠자는 불
편함이 있었지만 운동회 등 교제의 시간을 통해 서
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청년들은 수련회에서 서로 친밀함과 교제의 추억
을 갖고 더욱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자는 다
짐을 하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청년2부통신원)

시간과 우리의 삶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습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
란트를, 시간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묻실 때 자신있
게 내어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습다.

불만과 지나친 비판보다는 제게 주신 달란트와 시간
과 건강과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람들과의 관
계에서 상처받았을 때는 하나님이나 만들어 놓으신 아
름다운 자연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지를 늘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인도자의 편지

사랑하는 하나님



정마름에 비친 환한 햇살을 보며 하나님마를 떠올려본다.

아이들 덕분에 우리가 만난지 벌써 2년 되어가는 것 같다. 아이들은 오히려 소원해졌으나 우린 이제 며칠만 보지 못해도 궁금에 건디지 못하는 깊은 마음까지 나누는 친구가 되어버렸고, 학교 행사로 민박한 놀이촌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대공원에 가 긴 시간 앉아 처음 만난 하나님마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외롭고 힘들때 또 억울해져 절절 땀 맺 그리고 기쁘고 행복할 때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손길... 크리스천에겐 우연이 없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건 자기도 나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 어찌보면 하나님의 완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밖에 모르던 하나님마를 그리의 기도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제 자기를 볼줄고 깨었던 예수님의 손 다시는 놓지 말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큰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날마다날마다 달려가길 기도해요. 이제 미잖아 큰 아들이나 나무가 되어 수많은 연약한 자들에 사랑을 나눠줄 하나님마, 하나님마를 그려보며 하나님마 감시드려요. 나의 사랑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2000년 7월2일
최귀현 집사

+ 양호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긴급히 요청됩니다

- 3교구 김해경감사님은 유방암이 뇌, 입암선 등으로 전이되어 몸서 어려움중에 있습니다.
- 5교구 김해두성도님은 한쪽다리절단수술을 하셨지만 다른 한쪽도 절단수술을 해야하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 7교구 이인광집사님은 위수에 양성종양이 있어 위대시경 레이저치료중이며 식도도 치료 예정이며 순환항병 빈발 5400시에 입원중이십니다.
- 8교구 박희순집사님은 유방암이 재발되어 입파선암으로 치료중이며, 정정근집사님은 시력이 점차 감퇴되어 거의 볼수가 없다고 합니다.
- 10교구 김현섭집사님은 폐암발기로 치료중이 나 상당한 고통중에 계십니다.
- 11교구 김용복성도님은 당뇨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퇴원하여 매주 3회 투석중이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 16교구 서신영성도님은 감성신수술 후 회복단 게로 삼성병원 755호에 계시며, 신성애성도님은 사고로 의식불명상태 평촌 한림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시며, 양일순집사님은 신장염으로 안양 중앙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치료중이십니다.
- 17교구 추교천집사님은 위암 및 간암으로 성남병원(성남시)에 입원중이십니다. 단기선교사 추은(희두), 추진희(서리랑) 자매들이 주위로 기도하며 간병중에 일시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곤경에 처해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을 위한
기도와 병환심방 등을 통해
위로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의 찬송

"아내 맘속"

오 지 현 (청년부)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다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서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서 아 기쁘다~"

이 찬송은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 했을 때 친구에게 받았던 편지의 한 구절이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내가 동일하게 소유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었다. 당시 나는 많이 힘든 때였고, 친구가 말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때였다.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주 예수가 주신 평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게 된 지금 이 찬송은 내가 힘들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나오는 고백이 되어 있다.

한밤중에 몰아치는 폭풍우처럼, 때론 한겨울에 불어닥치는 매서운 비바람처럼 엄청난 고난이 인생 길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걸 잘 안다. 나의 작은 머리로선 일일이 그 뜻을 헤아릴 수 없기에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도 해보지만 돌아보면 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젠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와도 주님이 언제나 날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내 맘속의 이 평화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나는 영원토록 주님 주시는 이 평화를 노래할 것이다.

일터에서

큰 일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고동부 생지
장으로 봉사하
시는 홍원석집사
님을 만나기 참
어려웠다. 마칠
17일(월)부터 사
출간 고동부농어
촌전도를 위한 출
발준비에 분주한
홍원석님의 시간
을 어렵사리 30분
정도 얻어낼 수
있었다.

다소 생소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그분의 일터는 지질조사전문 용역회사인 (주)한국지사로, 회사의 특성과 회사명의 의미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 고숙도로 시공전 사전 지반 조사를 하고, 교각 기초공사를 검토하며, 터질시공에 관한 기본자료를 제공 하는 등 상당히 전문적인 직종이었다. 사후를 '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도 하여 전사원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지침이며, 또한 경영에 있어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정면돌파하며 거래처에도 성정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장 답사전 반드시 기도하고 출발하는 데 더더 동참하지 않으려는 직원도 있어서, 고동부교사모임 기도제목으

로 모든 직원의 예수님 영접을 내놓는다고 하였다.

초등학교1학년때부터 church에 줄곧 출석해 온 이른바 '출현대' 으로부터 것을 예수님께 맡기니 회사의 자금 문제를 포함한 대소사에 한치 오차없이 치밀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므로 언제나 감사해진다고 하신다. 현재 작은 산골교회에서 예수영화상영 등 전도사역을 위한 기획을 완료하여 실시단계에 이르렀고, 앞으로는 해외의 장비대어 등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선교사업도 펼칠 계획이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또한 학기 포부가 있다면 한국교회에 미치는 규모는 지질전문업체가 되는 것이라며 씩스름한 듯 웃으셨다.

홍원석집사께서 회사를 이토록 신실하게 경영하시기까지 겉으로 볼때는 아니었다. 78년에 설립한 90년차 지병인 디스크로 인하여 격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싸움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다. 또한 목은 젊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셨던지 마지막으 십자가에 올드려 회개하거 극심한 고통을 주던 병마가 한순간에 물러가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큰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데 역시 오랜 시간의 연단이 필요했던 것 같다.

(김석진 기자)

예수님의 눈물 장년2부 수련회를 마치고

민 병 인 (피백사, 장년2부 교사)



"너희는 내게 부르
졌으며 와서 내게 기
도하건대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
라"(렐29:12-13).

금년도 우리의 기도
주제는 '장년2부를 부
흥케 하소서' 50대 성
도들은 다 이리로 오
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잠자는 영혼들을 많이 불러 주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기도원 수련회를 갖게 된 나
는 성령의 감동함을 안고 설레이며 지난3일 교회를 출발하였습니다. 둘째날 제2강의
시간, 예수님과 함께 돌아버린 증현기도원 분당. 우리를 성령의 도가니로 물고기신
예수님! 예수님의 충성하신 행적들을 증거하시 때(히 3:16) 나사로의 죽을 앞에서
우신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충현교회를 바라보고 울고 계십니다." 울음 섞인 경현민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가 온통 눈물로 뒤뉘박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김병태 목사님
의 특별 기도 시간에도 "거기 나 있었는가. 너희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왜 기도하지
아니하며 방황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였고 은혜를 빌었고 결
심하였습니다. 찬송가 136장을 울면서 찬송했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이 참회의
눈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성령충만함을 감사하오며 그 성호를
높이 찬송합니다.

제22회 여름수련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충성하라'는 주제는 우리 모두가 참
회의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됨을 절실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충성'
이라는 이 귀한 두 글자를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항상 충성하고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
는 충현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에 부흥교회가 마무리되지 않
은 상태이나 우리는 각조별로 잠초제거, 유리자극, 방정소 등 중동원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정소를 마치고 은혜충만 사랑충만을 가득히 품고 돌아왔습니다. 차장밖으로
보이는 창조주의 위대하심이여! 장년2부를 부흥케 하소서! 성령의 단비로...

창세기의 새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 첫 장을 열면
가장 먼저 창세기를 대하게 됩니다. 창세
기는 영어로는 "Genesis" 라고 하는데,
"시작" "기원" 또는 "발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우
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모든 것들의
시작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
과 인류의 시작, 죄와 벌의 시작, 살인과
죽음의 시작, 인류의 문명과 인간이 자연

으로부터 받게 되는 재단의 시작,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시작 등, 지금도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현상들의 근원이 창세기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주의해야 할 일,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기
록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창조된, 우연하게 시작되고 우연하게
벌어지는 현상들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에 두
고 읽으실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작"이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그러저는 사건들을 신학에 나타나는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십시오.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예로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사역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고후5:17의 new creation). 또 2장의 결
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적인 관계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뿐
아니라 다른 구약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보시면 더욱 실감날 것입니다.
다. 그런데 사건들을 신학의 영적 의미로 생각하시고 해서 창세기의 기록들을 신
화나 상징적인 것으로 결론 내리시는 안되겠지요? 단지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을까 적용시켜 볼 것을 제안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현재 창세기를 읽고 계시는 분들에게, 창세기 창세기부터 읽기
를 원하시는 분들을 앞서 말씀한 것을 토대로 창세기를 읽고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마음

"지금 바로 이시간"

김 영 기 (전도사, 유년부 지도)

충 신대학 교수셨던 김득룡 박사는 '교회성장과 교육의 관계'를 말할 때
"백수 박사의 통계를 들어 '전체 교인의 75%가 주일학교 출신이고 교회
에서 봉사하는 제직과 직원들의 85%가 주일학교 교육을 받은 자들이다'라
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장년들에게 전도한 후 5년이 지나면 그중 87%가 떨
어지고 13%밖에 안 남지만 주일학교에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장
년에 도달할 때 60%가 남는다고 말했다. 또 주유 도사 교회 교인 300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일학교를 거친자들이 87%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통
계자료는 어린이 전도와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사실 한국교회
가 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이목을 끌 정도로 부흥된 요인도 어린이
를 전도하고 교육하기에 힘썼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30-40년전에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부흥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특히 6·25 전쟁이후 부산
에서부터 시작된 주일학교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주일학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현재의 장년들이 주일학교 다녔다면해도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수가 장년숫자보다 훨씬 많았다. 그 당시 어린이들이 지금
장년이 되어 40-50대의 연령층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각교회마다 40대
와 50대 정도가 가장 많은 패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그때문이다. 그런
데 90년대 들면서 주일학교가 눈에 띄게 줄어가고 있다. 제직인원 60만을 자
랑하는 한 교회의 초등학교 어린이 출신인원은 9200명에 불과하다. 제적대
비 1.53%에 불과하다. 우리교회의 초등학교 어린이 출신인원도 1000명 남짓
하다. 제적대비 5%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계는 실로 충격적이라 하지
수 없다. 지금의 장년층에서는 사모심단만 지나면 전국에 가고 지금의 어린이
숫자가 그 교회를 이끌고 나갈때데 그렇게 웅장하고 크게 기대되는 교회들
이 어떻게 될지 기도할 뿐이다. 주일학교는 교회의 기초이다. 주일학교가 없
는 장년은 장래가 없다. 요한 웨슬리의 말처럼 '다음에 오는 세대를 돌보지
않으면 현재의 종교적 부흥은 당대로 끝나 버릴 것이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어린이를 강권하여 교회를 채우고 교육해야 할 때가 아닐까.

내일은 그리스도의 날이다



하나님의 손

인듯 스치거는 한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불꽃낸다.

얼마 전 수련회차 기도원에 다녀왔다. 졸린 눈을 깜빡이다가도, 노는 시간
이런 연제 그랬나는 듯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기대감에 벅차 재잘거리는 것은
아이들만의 모습인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수련회의 참가자가 되고 보니, 강
의 시간동안 허기지지도 않았음에도 식사시간 한시간의 여유로움을 갈망하
고 있었다.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담소들과 귀한 음식을 먹고 난 후의 포만감
은 때론 누구도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

그날도 어지럽지 않게 담은 한 점심을 비우고 식기를 반납하려 일어섰다.
처음 음식을 담았을 때 '보기에 좋았던' 그릇은 식사가 마쳐지던 손이나
웃이 자칫 더러워져 조심하게 된, '기피할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를을
버리는 사람들은 그릇의 그나마 깨끗한 한쪽 부분을 잡고 수저로 긁어서 버
리거나 아니면 대충 털어 버리기 일쑤다. 나는 성함을 잘 알지 못하는 어느 권
사님(사실 직분을 알 수 없었지만 짐작으로...)이 반납창구에서 계산 것을 보고
'참 잘먹으셨다.' 라고 인사하며 막 그릇을 비우려고 하던 참이었다. '네' 라
고 대답하면서 식기를 가로챌듯이 받아 가진 그 권사님은 고무장갑도 끼지 않
은 주름진 손으로 식기를 능숙하게 훑어 내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더러
울텐데...' 하는 말이 뿜돌았다. 식당을 뒤로하고 걸어나오는데 그 권사님의
손이 계속 눈에 아른거렸다. 그러면서도 나는 왜 하나님의 손을 생각했을까? 우
리를 붙들고 온 축복하시는 손, 고치시고 싸매시는 손, 도우시는 손, 의로운
오른손... 음식을 담았던 그 그릇 마냥, 내 믿음의 의탁할까 점점 더러워져갈
때,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과연 어떤 손일까? 고무장
갑을 끼고 나를 아무런지시거나, 그나마 깨끗한 한 컵들을 잡고 웃이 더러
워지자 많을 손을 흔들어 털고 계시는가?

그 권사님의 손을 통해 자기 아들 예수의 피흘림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깨끗
하게 됨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시편98:1)을 본 것 같은 생각이 그날 기도
하기 위해 모았던 내 두손에는 어느 때보다도 힘이 들어가고 있었다.

(박철홍 전도사)

출현 중보의 창

구분	시 간	장 소
주말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수요와전 동시예배)	본당
	IV 오후 1:00(수요와전 동시예배)	본당
	V 오후 3:0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당
English Service	9:00 a.m.	강일리교회(Gallerie Hall)
찬양예배	오전 5:00	본당
수요예배	12:00 ~ 11:00 오후 7:30	본당
금요일예배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